

앤서니 J. 토마시노 박사, 십계명, 세션 4: 계명 3,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앤서니 J. 토마시노 박사님의 십계명 강의입니다. 4차시, 3계명,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입니다.

이제 세 번째 계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망령되어
일컬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름이 뭐죠?”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불멸의 음유시인이 물었습니다.
줄리엣은 로미오에게 자신의 이름을 버리라고 합니다. 장미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향기는 그대로일 테니까요.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단지 자신들이 불리는 이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이름들을 없앨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연극이 끝날 무렵, 당연히 그들은 자신의 이름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으며, 단순히 손잡이나 누군가를 부르는 편리한 이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셰익스피어보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여러 성경
이야기에서 이름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합니다 .

누군가가 군주와 새로운 관계 를 맺을 때마다 새로운 이름을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빌론 왕에게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왕들은 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제국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거의 '존귀한 아버지'를
뜻합니다. 어쩌면 '큰 아빠'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새로운 이름을
주실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맺게 된 새로운 관계를 시사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가 쌍둥이 형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다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야곱은 무언가를 붙잡는 사람, 어쩌면 자신에게는 없는
것을 특별히 붙잡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야곱의 이야기 후반부에서 우리는 그가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아, 자신이
권리가 없는 것들을 탐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는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입니다 . 이 경우,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치다가 나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옵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어떤 위로나 도움도 주지 않자 다윗은 그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나가서 남편을 위해 간청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 주님 , 제 남편 나발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

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그렇듯,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발은 공교롭게도 히브리어로 '어리석은 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이름이 바보라는 뜻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는 바보였죠. 남편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예의에 어긋나죠.

하지만, 하지만, 결국 모든 게 잘 풀렸죠. 나발은 죽고 아비가일은 다윗 왕과 결혼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름이 사람의 본성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은 고대 근동 세계에 아주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왕의 이름이나 어리석은 자의 이름이 그들의 본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면, 당연히 주님의 이름도 그분의 본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사람의 연장선과 같다고 여겨졌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 특히 신적인 존재의 이름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주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일에 까다롭게 구는 자들을 위해 주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이야기입니다.

밤새도록 씨름한 후, 아침이 밝아오자 야곱은 신에게 "이름을 알려주세요."라고 묻습니다 . 그러자 신은 야곱을 통명스럽게 거절하며 " 왜 내 이름을 묻는 거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 야곱은 몇 가지 타당한 이유 때문에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야곱을 축복하며 자신의 이름을 축복에 사용합니다.

이름은 성격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름은 사람의 연장선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관계를 맺을 때, 주님의 이름에 대해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와서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할 때,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간단히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사실, 거기에는 특별한 이름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 중요성에 대한 온갖 이론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야훼라는 언약의 이름을 실제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야훼는 나중에 모세에게 알려 주실 이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름을 밝히는 것은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알려주면 그 사람이 이름을 오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지 말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매우 흔한 히브리어 동사 나사(Nasa)입니다. 나사는 ‘들다’, ‘운반하다’, ‘사용하다’, ‘활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학대나 그런 종류의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단순히 “말하다”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성경에는 “나사”가 “말씀”을 가리키는 다른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취하지 말라”는 것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야훼, 즉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에게 주신 계시된 언약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원래는 엘로힘, 즉 하나님을 지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사람들은 누군가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맹세나 감탄의 표시로 말할 때,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사실, 하나님은 원래 그들이 생각했던 존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부여한 일종의 확장어인데, 아마 엘이나 아도나이라는 칭호를 지칭하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이 원칙은 이러한 칭호에도 적용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신이나 아도나이라는 칭호조차 발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일부 집단에서는 이것이 다소 예민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매우 보수적인 유대인 작가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흥미롭죠. 그들은 종종 신의 이름을 G 대 D로 표기하곤 합니다. 심지어 신의 이름을 쓰는 것조차 무례하고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아니면 계명을 어기는 것과 비슷하거나, 어기지 않더라도

계명을 어기는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매우 엄격한 유대인들은 이런 법을 어길 가능성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영어 이름으로 히브리어로는 평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점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의,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알다시피, 아들이, 너는 내 성을 따를 거야라고 말할 때, 당신은 알다시피, 그렇지 않을 때, 당신이 무엇보다 보호해야 할 것은 당신의 좋은 이름입니다. 물론 그것은 당신의 평판을 의미하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평판을 가리킬 수 있었습니다.

아시 다시피, 시편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들이 염두에 두었던 것이 현대 찬양 음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 당신의 이름은 참 아름다우시네요. 하나님, 저는 예수라는 이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라는 식의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런 의미로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주님의 명성, 즉 주님의 행적,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행하신 일들과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 모든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단어입니다. 현대 번역본들은 이 단어에 대해 온갖 해석을 시도해 왔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요즘 가장 흔한 번역본 중 하나일 겁니다.

옛 킹 제임스 성경은 "헛되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의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헛되이"로 번역된 단어는 현대 발음으로는 "shvah"인데, "shvah"는 공허함이나 사소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영어 발음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가벼운 모음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할 때 영어로 "shvah"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음, 이 단어는 바로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게가 없다고 여겨지거나, 사소하고 무의미하다고 여겨지거나, 거짓을 지칭할 수 있는 무언가로 사용되고 여겨진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샤바(shvah)"라는 말, 즉 허영심의 말은 거짓을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은 요약된 진술이며, 그 의미는 율법의 다른 부분과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다소 보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얻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꽤 모호한 표현 인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음, 굳이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토라의 뒷부분에 그들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려주는 구절들이 몇 개 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가장 두드러진 방법 중 하나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모두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모독하는 것은 특히 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생각이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름은 평판일 수도 있고, 문자 그대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주님에 대해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의 이름을 모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

입니다 . 레위기 24장 10절에는 다소 섬뜩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남자였던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에서 싸웠는데,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이집트인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인인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이집트계라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고, 어떤 식으로든 저주하는 방식으로, 조롱하는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그 남자를 모세에게 데려왔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지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온 공동체가 모여 그 남자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가 주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사명에 따라 문자 그대로 그 이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명에서, 저는 '종말 동굴'이라는 용어를 해석했는데, 여기서는 '모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미슈나에서 '동굴 없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완전함'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사명에 따르면, 이 사람의 가장 큰 죄는 그가 실제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무에 대해, 저는 실제로 야훼라는 신의 이름을 실제로 사용 하고 발언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신성모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이 산헤드린 7, 5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고발당하신 재판에서는 분명히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해 보겠지만, 그 개념은, 서기 3세기 선교 사업 당시 랍비들이 주장했던 개념인데, 신성모독죄를 지으려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단순히 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어떨까요? 시편 139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오, 오, 당신께서 악인을 죽이시기를. 오, 하나님. 그런데 이 시편은 좀 무섭기도 하네요.

그러나 그들은, 오, 당신께서 악인들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이며, 피 흘리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나이다. 그들은 악한 의도로 당신을 거슬러 말하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시적 병행법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아시다시피, 그들이 당신을 폄하하고 나쁜 말을 한다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 그들은 당신에 대해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신성모독을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신성모독죄로 정죄받으셨습니다. 왜냐고요?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그들은, 우리는, 우리는 그분을 죽이고 싶어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리고 재판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그분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구절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밝히심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성모독 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의 역사가 마귀에 의해 행해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걸 사람들이, 목사로서, 제게 "성령을 모독했나 봐."라고 말하는 그런 죄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을 놀렸어."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의도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죄는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많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합니다. 이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거역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런 종류의 신성모독죄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 자체 때문인지, 아니면 태도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도 자체가 마음의 완고함을 나타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그건 좀 다른 이야기겠죠.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막대기나 돌맹이는 뼈를 부러뜨릴지 몰라도, 말은 절대 나를 다치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것에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요? 네. 하나님은 연약한 자아를 가지고 계셔서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할까 봐 두려워하시는 걸까요? 글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나 무언가를 조롱하고 주님에 대해 악담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일종의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이 국민의 신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와 마찬가지로, 누군가 대통령과 그의 정책 등에 대해 악의적인 말을 많이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적에게 원조와 위안을 제공한 혐의,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지켜주실 능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그토록 진지하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이 주님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또 다른 방법은 서원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원을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서원을 하겠다고 자주 권유받았습니다.

절에 보면 ,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오와 줄리엣처럼 말하는 대신, 로마오는 달을 두고 줄리엣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길, "아, 달을 두고 맹세하지 마세요. 변덕스러운 달을 두고 맹세하지 마세요." 물론 구약 시대에 달을 두고 맹세했다면, 아마도 달의 신을 두고 맹세했을 겁니다. "달의 신이 나를 치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맹세했을 테니까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신명기에도 " 달을 두고 맹세 하지 마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양 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 이러한 자연 현상이나 다른 어떤 영을 두고 도 맹세하지 마라. 오직 주님 을 두고 맹세하라. 주님 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내가 이것을 행하리라.

좋아요. 하지만 그런 맹세를 하고 지킬 생각이 없다면, 그건 아주 나쁜 짓이에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야훼니라. 이는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동일시됩니다 . 이는 마치 "내가 약속하노니, 네가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준 이 모든 재물을 화요일에 갚겠노라. 그대로 갚으리라"와 같은 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자금이 없습니다. 자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 그저 누군가를 조종해서 당신의 진심을 보이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스가랴 5:3.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 이것은 온 땅에 임하는 저주이니, 도둑질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편에 있는 것만큼 깨끗해질 것이요, 거짓 맹세하는 자는 저편에 있는 것만큼 깨끗해질 것이다. ”

스가라서 번역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복잡하네요. 어쨌든, 만군의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 내가 그것을 보내리니, 그것이 도둑의 집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고, 그의 집에 머물러서 그 집을

삼키리라. 나무와 돌을 다 삼키리라. 스가라서에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쓸어버리실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도 맹세를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거짓 맹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근본적으로,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신약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십계명과 산상수훈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서는 세 번째 계명의 이 측면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또 옛 사람이 이르되 거짓 맹세하지 말고 네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그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도성임이요 네 머리 로 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 라고만 말할 뿐,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네, 맹세를 어기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맹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예' 라는 대답도 충분히 좋고, 당신의 '아니오' 라는 대답 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니 이런 맹세를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가 환유라고 부르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본질적으로 연관된 두 가지가 수사학적 의미로 연결되는 원리입니다. 그가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은 "천국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 입니다. 유대 역사의 이 시점에서 그들은 이미 "천국"이라는 단어를 신을 지칭하는 별칭이 아니라 일종의 은유 로 사용했습니다 . 주님을 지칭하는 대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대신, "하늘이 당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아시겠지만, 그건 그들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피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는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실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진심인 척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필요 없다면요. 그러니 아예 욕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형제들아,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예’는 ‘예’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 하라 . 그리하면 정죄를 면하리라.

야고보 는 주님의 말씀을, 매우 실용적인 용어로 자주 언급하듯이, 그대로 반복하며 맹세는 본질적으로 위험한 영역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 하는 또 다른 방식인데, 이는 우리 사회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마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에 대한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름은 사람의 연장선이므로, 마술사들은 종종 주문에 영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바빌론의 수많은 주문과 이집트의 수많은 주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문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신과 영혼의 이름을 이용해 그들을 조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문들이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 꽤 흥미롭습니다. 이름들이 종종 함께 쓰이거나 뒤섞여 쓰인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는 많은 흥미로운 발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는 물론 마술사나 마술 쇼를 연상시키는 용어이지만, 원래는 마술에서 훨씬 더 진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구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의 변형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꽤 타당한 이론일 겁니다. 네 , 압, 그의 아버지, 영은 아라캄 이고, 아들은 물론 바르입니다. 아브라카다브라는 마법 주문에서 이름을

자주 사용하는 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름을 섞어서 운율을 맞추는 식으로 말이죠.

우리는 이런 일을 꽤 자주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하게 사용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저주하는 글에서, 저주하는 글에서 발견합니다.

이런 종류의 것들이 많이 있죠. 아람어로 저주 그릇이라고도 합니다. 텍스트도 있지만, 그릇이 재밌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은 적의 이름과 그릇을 쓴 다음, 저주를 내려달라고 빌 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릇을 가져다 가 일종의 동정 마법처럼 깨뜨리곤 했는데, 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지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는 기본적으로 저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에는 신들의 이름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강력한 영혼의 이름은 종종 덜 강력한 영혼을 명령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검과 마법 판타지 장르의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마법사가 위대한 영혼의 이름을 빌려 악마를 자신의 뜻대로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런 일은 아주 먼 옛날부터 있어 온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왜곡된 패러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교도들처럼 의미 없는 반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치 마법에 가까운, 영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노래처럼 읊조리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마법은 어떤 면에서 신을 불러들이고, 신의 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신을 무례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의 이름에 부여된 권력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 합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구약성서만큼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 그러한 의도를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후기, 즉 신구약 중간기부터, 그리고 우리에게 꽤 많이 남아 있는 유대 마법 문헌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던 작은 상식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기(Common Era)의 로마 마법에서는 많은 신들의 이름을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로마 마법 문헌에서 다른 어떤 이름보다 더 자주 사용되고 등장하는 이름은 바로 야훼입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간직했던 주님의 비밀스러운 이름에 어떤 종류의 진정한 초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마법 문헌에서 이 이름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놀랍고 아이러니하죠. 이 세 가지 관행에 해당하는 현대적 관습들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아시다시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좀 구식처럼 들립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기되는 태도 또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욕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모독. 신성모독이 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도 지칭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단어는 시대적 흐름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신론자, 심지어 무신론자조차도, 음, 무신론자가 많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이신론자였던 볼테르가 무신론자들을 매우 싫어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무신론자들은 그들이 반신 운동 전체에 악명을 안겨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세기 무렵까지 무신론은 종종 일종의 광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무신론자들은 벽장에서 나와 기독교와 신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영리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조롱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스가 왜 그렇게 웃겨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책들은 신을 모든 문학사에서 가장 사악한 인물로 묘사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행적을 훼손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일들은 모두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계명이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정 체제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종류의 국가적 단결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교회 안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한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그들은 계명에 얽매이지 않으니까요. 우리 중 누구도 계명에 얽매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십계명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마 “그래서 뭐 어때요?”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저도 그들의 의견에 동의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아시다시피, 그들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그 결과를 감수하며 살면 됩니다.

하지만 네, 제 말은, 그건 분명히 여러 면에서 신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힘겨워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도 약화시킵니다. 상처는 되지만,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사탄이 새롭게 계산해 놓은 도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존중하고 논리적으로 논쟁하려고 노력하는 건 소용없었으니, 그냥 모욕적인 말을 해 봅시다. 거짓 맹세죠.

신께 맹세하건대, 당신 세금을 낮추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진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신의 이름을 부르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신앙심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일을 정치인들에게서 흔히 떠올리지만, 분명 같은 일을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진실하게 들리고 싶어 하고, 자신이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확신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종종 신의 이름을 부르곤 합니다.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제가 상담했던 젊은 부부는 매우 힘든 관계를 겪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교회 경험이 많지는 않았지만, 제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찾아오시더니, 결혼 상담을 받으러 제 사무실로 오시더군요. 그분은, 그분은, 그분은 항상 이런 식의 말을 하셨습니다. 싸울 때마다, 때로는 실제로 몸싸움 까지 벌이시더군요 .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신께 맹세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 “신께 맹세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며, 각자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신께 맹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진심인 것처럼 들리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확신시키고 싶었죠. 그리고 아마 둘 다 진실을 말하고 있지는 않았을 테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의 이름을 공허하게 사용해서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저에게 확신 시키려 했습니다. 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짓을 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마법 주문을 외우듯,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법에 대해 그렇게 많이 걱정하거나 생각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마법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요즘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중 몇 가지는, 예를 들어 십자군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영주들과 성직자들은 때때로 신의 이름과 신의 명예를 내세워 사람들을 선동 하여 적들과 싸우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경건함으로 포장합니다. 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자신의 악행에 끌어들이니다.

그리고 여기에 헛된 말을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사람들의 종교적 감성에 호소하며 자신의 경력을 쌓아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역을 쌓으려고 했습니까? 목사가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냉소주의가 얼마나 깊은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 이사회 회의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믿는 대의, 혹은 그 대의가 반드시 하나님의 대의 여야 한다고 확신하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다시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근을 보이콧하라고 원하시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기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대의에 붙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저는 대학 캠퍼스 바로 근처에 있는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곳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다가가 대학 캠퍼스에서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대학생들을 섬길 만한 기술이나 관심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건물을 팔고 교외에 새 건물을 사려는 세력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들은 그 건물이 최고의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사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사 반대 세력은 사실 좀 더 경건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건물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사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호가 하나님의 뜻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위험할 정도로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겸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니아 연대기에서 비버 씨가 아이들에게 아슬란은 길들여진 사자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대사처럼요. 아뇨, 그는 우리를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대의에 끌어들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세상과 교회에서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가장 두드러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앤서니 J. 토마시노 박사님의 십계명 강의입니다. 4차시, 3계명: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